



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ansancci.korcham.net) ▷ 새소식 ▷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

안산상공회의소,

『제170회 최고경영자 강연회』 개최

-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초청
- '격변하는 중동 정세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점검' 주제 강연

안산상공회의소(이하 안산상의)는 5월 20일(수) 그레이트홀에서 『제170회 최고경영자 강연회』를 개최했다. '격변하는 중동 정세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점검'을 주제로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를 초청한 이번 강연회는 안산 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장·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권혁석 안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중동 정세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물류 차질로 이어지며 우리 산업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 속에서 정세의 흐름을 읽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강연을 준비했다"고 개최 취지를 전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박현도 교수는 국제법상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체제 하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설명하며, 중동 지역을 둘러싼 핵 리스크의 본질을 분석했다. 과거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환율이 폭등했던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제재 복원 리스크가 글로벌 유가 변동성을 키우고 대외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현도 교수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무역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중동 정세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치명적인 파급 효과를 설명했다. 원유를 수입해 가공한 뒤 재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 특성상, 중동 석유 시장의 흔들림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국내 기업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현도 교수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를 절대적인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정서적 흐름이나 이념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하고 능동적인 태도로 대외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안산상의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최고경영자 강연회'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이슈와 이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1989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붙임. 행사 사진. 끝

붙임. 『제170회 최고경영자 강연회』 사진

